

취준생 70만명, 4년 만에 줄었다... '공시생'도 큰폭 감소

통계청, 경찰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청년층 총인구 859만5000명...-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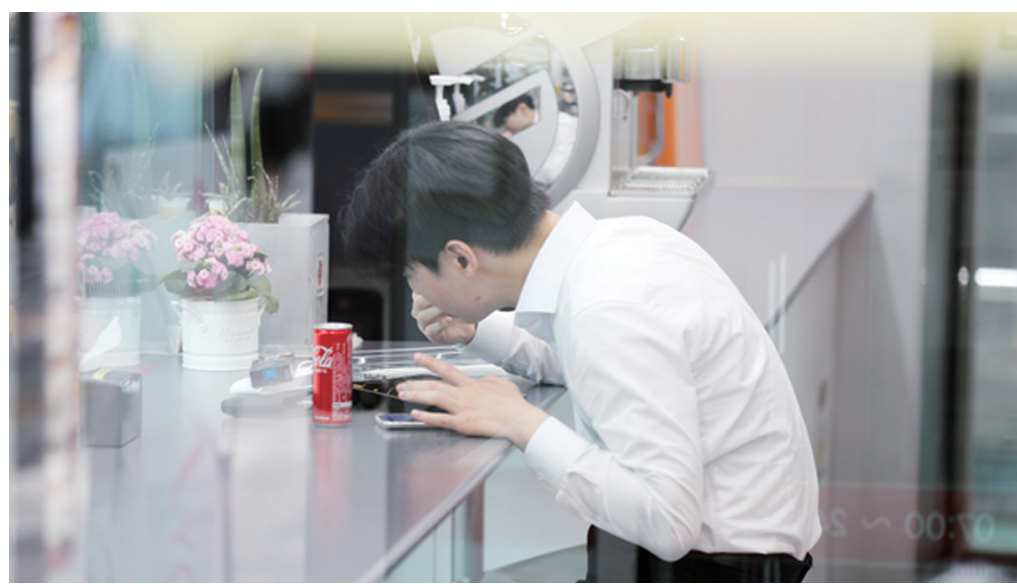
최근 고용 증가세 영향 등으로 청년층(15~29세) 취업 준비생이 70만명을 겨우 넘겼다. 1년 전보다 15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4년 만에 감소세로 꺾였다. 취업생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공시생'이었던 것, 그 규모도 크게 줄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총인구는 85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4000명(-2.3%) 줄었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수는 44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1만4000명 증가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410만4000명, 실업자는 32만명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7.8%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p) 상승했고, 실업률은

7.2%로 2.1%p 하락했다. 반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41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8000명 감소했다. 이 중 취업생 비율은 전체의 16.9%로 70만4000명(지난 1주간 기준)이다. 1년 전에 취업생이 85만9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2%p(15만5000명) 줄었다. 취업생 규모는 5월 기준 2017년 69만9000명에서 2018년 62만6000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9년 71만4000명, 2020년 80만4000명, 2021년 85만9000명으로 계속 늘었지만, 이번에 4년 만에 감소했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2021년 3월부터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취업자 증가로 비경제활동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 취업 시험 준비자도 같이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업 시험에는 일반기업체 입사, 공기업·연료사 입사, 교원 임용, 일반직 공무원 인용, 고시 및 전문직 시험, 기능분야 자격증 취득 시험 등이 포함된다. 그중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 비중은 전년 동월에 비해 2.5%p(6만8000명) 감소한 29.9%(21만명)다. 10명 중 3명 정도가 공시생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공시생 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된 조직문화와 획일화된 업무체계, 낮은 임금을 이유로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바닥을 치는 등 공시 열풍이 시들해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과장은 "작년에는 4.1%p 상승했다"며 "공시생 규모가"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소했다. 따라서 선호도 변화나

지속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시생 중에서는 남성이 더 많았다. 남성 공시생은 10만9000명인데 비해, 여성 공시생이 14만5000명으로 남성 공시생 13만3000명보다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 공시생이 더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외에 공시생들은 일반기업체 23.8%(16만8000명), 기능분야 자격증 취득 시험 18.7%(13만2000명), 공기업·연료사 12.2%(8만6000명), 고시 및 전문직 시험 11.6%(8만2000명), 교원 임용 3.9%(2만7000명) 순으로 취업 시험을 준비했다. 청년층 중에 최종학교를 졸업(중퇴)한 사람은 469만1000명(54.6%)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 줄었다. 재학생은 351만9000명(40.9%)로 13만7000명 감소했다. 휴학생은 38만1000명(4.4%)로 전년 동월에 비해 5만3000명 적어졌다. 대졸자 중 휴

학경력자 비율은 46.6%이며 휴학 사유는 남성은 병역의무 이행(96.0%)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51.2%)를 위한 휴학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교를 졸업(중퇴)한 사람 중에 취업자는 33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2000명 늘었지만, 미취업자는 133만명으로 21만7000명 줄었다. 청년층 대학졸업자는 28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4년3.7개월로 1년 전보다 0.3개월 증가했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년1.7개월이다. 이 역시 지난해보다 0.1개월 길어졌다. 현재 미취업자의 미취업 기간은 3년 이상인 16.8%로 1년 전보다 1.2%p 하락했다. 반면 6개월 미만은 44.3%로 3.6%p 상승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직업교육, 취업시험 준비(41.2%), 그냥 시간보냄(25.7%) 순으로 높았다. 정승호기자



치솟는 외식 물가에 편의점 '마감 세일' 인기

#사회초년생 김모씨(28)는 자취 생활을 하면서 점심과 저녁을 모두 편의점 간편식으로 때우고 있다. 매일 회사 부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은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으니 한달 식비로만 100만원이 나와 생활비 절약을 나선 것이다. 박씨는 편의점 마감할인 서비스를 통해 도시락을 평소보다 30% 싸게 사고, 구독 서비스로 샌드위치와 삼각김밥 등을 할인 받아 한 달 식비를 3분의 1로 줄였다. 최근 외식 물가가 급등하면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1~2인 가구와 혼밥족이 늘고 있다. 편의점 마감 세일이나 멤버십 혜택을 이용해 간편식을 구매하면 3000~4000원으로 푸짐한 한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U의 마감할인세일 '그린세일'은 6월 한 달 이용건수가 전년 대비 17.3% 늘었다. 그린세일 서비스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GS25의 마감 할인 서비스도 6월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282.6% 신장했다. 마감 할인판매는 GS25·GS터프에서 팔리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로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

지난달 세븐일레븐의 '라스트오더' 이용건수도 전년 대비 20% 늘었다. 같은 기간 이마트24의 라스트오더 서비스는 122% 증가했다. 편의점들은 월정액을 내면 자주 이용하는 품목을 할인해주는 구독 서비스도 판매 중이다. CU는 도시락, 샐러드, 즉석원두커피 등에서 구독을 원하는 카테고리를 골라 1000~4000원 결제하면 한 달에 정해진 횟수만큼 할인해주는 '구독 쿠폰 서비스'를 내놨다. GS25는 유로멤버십 서비스 '더플러스'를 운영 중이다. 월 이용료를 지불하면 주요 상품들을 20~2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커피, 도시락, 주먹밥, 햄버거 등이 할인 대상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고 샌드위치, 즉석커피, 얼음컵, 바나나 등을 할인구독 서비스로 선보이고 있다. 얼음컵 구독권의 경우 월 1000원을 내면 30일간 얼음컵 20개를 300원씩 할인해주는 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식재료와 함께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편의점 간편식을 찾는 직장인이 부쩍 많아졌다"며 "마감세일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한끼 식사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파리바게뜨, '타이타라 소비뇽 블랑' 출시

여름 시즌 즐기기 좋은 뉴질랜드 와인



파리바게뜨가 여름 시즌에 즐기기 좋은 뉴질랜드 와인 '타이타라 소비뇽 블랑'을 출시했다

다고 19일 밝혔다. 이 와인은 뉴질랜드 남섬인 소비뇽 블랑의 성지라 불리는 말보로(Malborough)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들어 산뜻한 아로마와 상쾌한 산도를 자랑한다. 말보로 지역의 소비뇽 블랑 100%로 갖 탄 허브, 살구, 오렌지, 자몽, 시트러스의 아로마가 넘쳐 입안 가득 신선한 선도를 경험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져 수많은 테이스팅을 통해 이번 와인을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김재환기자

이마트24, 성주참외·씨앗호떡, '아이스크림으로 구현'

지역 특산품 아이스크림 2종 출시

편의점 이마트24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자체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선보인다. 이마트24는 19일부터 성주 대표 농산물인 참외를 모티브로 '성주참외콘(2000원)'과 부산 대표 간식인 씨앗호떡을 아이스크림으로 구현한 '부산씨앗호떡콘(2000원)'을 판매한다. 성주 참외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 성주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높다. 부산 씨앗호떡은 호떡 속에 달달한 시럽과 해바라기씨, 호박씨, 팥콩 등의 견과류를 가득 넣은 먹거리다. 이마트24가 선보이는 '아임 성주참외콘'은 성주 참외의 과육이 담긴 아이스크림 속에 해바라기씨를 넣어 생김새가 참외와 흡사하고, 성주 참외의 수제정을 넣어 상큼하다. '아임 부산씨앗호떡콘'은 계피, 호떡시럽, 팥콩가루 등이 함유돼 시나몬 향과 고소한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또 끈 상단에 톡톡 씹히는 견과류 토핑을 올려 씨앗호떡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마트24는 이번 지역 특산품 아이스크림 2종 출시를 기념해 31일까지 해당 상품을 2개



구매 시 1개를 담으로 주는 '2+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이슬기자

전세계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여행업계 '상황 주시'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다시 맹렬히 기세로 퍼지면서 리오프닝(경제재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행 업계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6299명으로 전주 동월 대비 1만 2692명 증가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25일(3만 4361명) 이후 12주 만에 최다이며 5월9일(2만585명) 이후 10주 만에 2만명대로 올라섰

여행 업계 "당장 재유행 여파 없지만, 장기화 시 여행 심리 위축"

다.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보름째 지속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국외의 재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2만9987명으로 2주 전보다 14% 증가했다. 또 최근 세계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에서 나오는 등 유럽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일본의 하루 신규 감염자는 지난 16일 11만676명에 달해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지난 2월5일의 10만4202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배경에는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BA.5 등)의 유행, 여름철 이동량 증가, 면역력 감소 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여행 업계는 당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특별한 영향은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재유행이 장기화하면 여행심리 수요가 위축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모두투어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7월11일~7월15일) 해외여행 신규 예약 건수는 그 전주(7월4일~7월8일)보다 36% 증가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외여행 신규 예약 건수가 증가하거나 여행 취소율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며 "당장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재확산 상황이 장기화하면 자연스럽게 여행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좋은여행도 마찬가지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최근 7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해외여행 신규 예약건수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이는 여름 성수기 예약이 빠졌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여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교환율, 고물가 상황에서도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적극적 수요층'으로, 아직 여행심리 수요가 꺾이진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엔 여행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도 "코로나19 재확산세 뿐만 아니라 고물가, 교환율 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여행수요에는 별다른 동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각국에서 방역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아 아직 여행 수요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며 "재확산 장기화로 방역규제가 강화된다면 여행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입국 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재환기자